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한 페미니즘의 영향과 가정관리학의 연구방향

Einfluß des Feminismus auf die Bewertung der Hausarbeit und Forschungsrichtung der Haushaltswissenschaften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부 교수: 李 基 榮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Ki Young Lee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강 사: 宋 惠 林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t Time Instructor: Hye Kim Song

— 목 차 —

I. 서 론	V. 가사노동에 관한 가정관리학의 연구방향
II. 페미니즘의 정의 및 그 범주	VI. 결 론
III. 가사노동에 대한 페미니즘의 입장	참고문헌
IV.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한 페미니즘의 영향	

= ABSTRACT =

Bei der vorliegenden Arbeit handelt es sich um Einfluß des Feminismus auf die Bewertung der Hausarbeit. Darüber hinaus wird versucht darzustellen, was die Hausarbeitslehre in Haushaltswissenschaften durch feministische Perspektiven zur Hausarbeit gelernt hat und worauf sich die Hausarbeitslehre zukünftig richten soll.

Durch die Analyse werden folgende Vorschläge für die gerechte Bewertung der Hausarbeit herausgefunden :

1) Feministische Maßnahmen für die bessere Bewertung von Hausarbeit, d.h. Forderung nach Lohn für Hausarbeit, Vergesellschaftung der Hausarbeit, Anerkennung der Beziehungsarbeit als 'richtige' Arbeit, usw., werden kaum erfolgreich sein, ohne die Notwendigkeit der Bewertung von Hausarbeit bewußt zu machen und den Grund, weshalb Hausarbeit überhaupt bewertet werden soll, aufzuzeigen.

2) Hausarbeitslehre in Haushaltswissenschaften soll sich vor allem darauf richten zu fordern.

daß Hausarbeit von beiden Geschlechtern, nämlich von Mann und Frau, gleich verteilt und geleistet werden soll.

3) Alle Menschen, Frauen und Männer, sollen entsprechend ihrer Begabung, Ausbildung und ihrem Interesse Hausarbeit oder Erwerbsarbeit oder beide Tätigkeiten frei auswählen dürfen und können. Es gibt dafür keinen plausiblen Grund, daß die Männer von Haushaltstätigkeiten befreit sind. Eine wichtige Aufgabe der Haushaltswissenschaften ist es, solche faire Gesellschaftsform, in der alle Tätigkeiten, die der Wohlfahrt der Menschen beitragen, gerecht bewertet werden, vorzustellen und zu gewährleisten.

I. 서 론

최근 들어 가사노동에 대한 여론과 또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사노동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가정관리학 연구자들과 여성학 또는 페미니즘 연구자들의 활동, 그리고 노력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초기부터 가사노동에 지속적 관심을 갖어 온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가사노동은 그 시간구조, 분담,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사회화 그리고 가치평가의 각 영역별로 연구되고 있으며, 여성학에서는 주로 가사노동의 생산성 여부와 가치평가가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는, 가사노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두 학문영역 즉, 가정관리학과 여성학의 가사노동에 대한 이해는 어떠하며 가사노동 연구의 출발점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한 두 연구영역의 영향은 어떠한가 등에 관심을 갖고, 먼저 가사노동에 대한 페미니즘적 논의 및 그 시각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전망 그리고 여성의 생활조건 개선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가정관리학이 지향해야 할 가사노동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페미니즘의 정의 및 그 범주

1. 페미니즘의 개념

이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은 페미니즘(Fe-

minism)인데,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은 “여성해방주의”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통례적으로는 원어 그대로 사용된다. 본 장에서는 페미니즘, 그리고 페미니즘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되는 여성운동, 여성학의 개념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이해하는 페미니즘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페미니즘은 19세기 초 이래로 알려지기 시작한 개념으로, 사회적 문화적 제반 생활조건에서 여성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 내지 추구로 정의되며, 여러차례의 변동과정을 거쳐 오늘날에는 여성운동 내부, 외부에서의 다양한 세계관적 입장과 추구들의 종합개념으로 이해된다(Wisniewski/Kunst, 1988 : 168). 페미니즘의 논의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와 가족에 있어서의 역할개념, 즉 성차별적인 노동분담, 역할기대, 역할규범 등이 그 핵심을 차지한다. 페미니즘의 중심은 따라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차별적 노동분담에 대항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겠다(Brockhaus 대백과사전, 1988 : 188). 더 나아가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에 의해서 발전된 역할규범에 도전하며 여성들의 삶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다.

오늘날 페미니즘은 “여성문제”로 귀결되는 현상에 대한 인식, 분석 및 문제해결을 위한 이념적, 정치적 사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페미니즘은 그러나 여성문제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 여성 문제는 하나의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가족, 사회 그리고 다른 주변조건들과의 관계 안에서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미니즘은 단지 여성의 생활조건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는 세계관이며, 제반 사회적 제도와 체제를 변화시켜 모든 억압형태를 극복하려는 것을 지향한다(List, 1989 : 10).

이러한 페미니즘은 여성운동(Women Movement)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여성운동은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여성문제를 위한 조직된 운동형태라 정의될 수 있으며, 그 근본이념은 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즘에 영향받은 여타의 원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성운동은 또한 하나의 투쟁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평등을 위한 조직된 투쟁유형으로 표현된다(Meyers 대백과사전, 1973 : 366).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은 여성들의 이해와 관심을 조직적으로 대표하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 여성들의 불이익에 도전하는 모든 추구를 지칭한다.

한편 이러한 제반 여성의 불이익을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영역을 여성학(Womens' Study, Feminism Research)이라 할 수 있는데, 여성학은 미국에서 최초로 조직된 형태로 형성, 발전되었다. 여성학은 통례적으로 여성의 요구, 시각 및 관심과 이해를 대표하는 연구분야로 정의된다(Brockhaus 대백과사전, 1988 : 608). 지금까지 거의 모든 학문영역이 대체로 남성들에 의해 주도,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성학이라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학문영역의 생성과 발전 및 그 독자성의 향상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세가지 개념, 즉 페미니즘과 여성운동 그리고 여성학의 중심은 보편적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공동의 관심이다. 이 세 개념의 목표와 공동의 방향성을 표현해 주는 말로는 기회균등과 양성의 평등 추구, 여성해방의 실현, 성차별적 역할규범과 노동분담의 변화, 여성의 능력과 노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 등이다.

이러한 세 개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페미니즘과 여성운동, 그리고 여성학을 내용상 또 그 의미와 방향성의 측면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면

서, 페미니즘으로 대표하여 지칭하고자 한다.

2. 페미니즘의 범주

일반적으로 이러한 페미니즘의 다양한 주류를 살펴보면 다음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하 v.Schweitzer, 1991 : 325-329 인용).

1) 자유주의 페미니즘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일반적인 시민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동등권리정책을 지향하며, 공적인 여타의 영역 즉, 학문이나 정치 등에서 여성의 차별을 배제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한다.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원리에 있어서 여성이 가사노동을 담당한다는 사실 자체는 기회균등과 선택의 원리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실현의 가치 추구라는 자유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가사노동이 현 사회에서 결코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또한 화폐적 가치가 주어지지 않는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여성은 남편의 경제적 능력에 의존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여성의 자유와 자율성이 제한 받는다는 것이다(김혜경, 1985 : 27).

2)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신마르크스이론의 사회비판이라는 측면에서 시민권리운동에 대한 요구를 과격화하며, 제반 사회의 권력관계, 즉 기존의 계층관계와 생산조건의 측면에서 여성의 억압에 대한 구조와 기제를 찾고 있다. 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대표자들은 거의 Marx의 계층분석이론의 영향을 받으며(Brockhaus 대백과사전, 1988 : 188), 여기에서 가사노동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분석하는데 주된 개념으로 등장한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에 주목하여 생산과 재생산의 문제에 관심을 둔다. 이 경우 생산과 재생산, 즉 임금노동과 가사노동의 관계를 새로 파악하고 재평가하려는 시도가 나오기도 한다.

3) 급진적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은 성과 재생산의 가부장적 구

조화와 조식화를 여성 해방론적 정책의 우선적인 관심사로 보고 있는 주류이다. 이 급진적 페미니즘의 경우 여성의 딜렘마를 경제적 관계(자본과 남성의 지배)가 아닌 가부장제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한다. 또한 가부장제로 인하여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분리되며, 각 활동이 차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이 가사노동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과 억압, 착취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4) 문화적 페미니즘

최근에 위에서 언급한 급진적 페미니즘은 상대적으로 복잡적이고 새로운 네번째 주류를 파생시켰는데, 이를 문화적 페미니즘이라 지칭한다. 이 주류는 정치적으로 즉, 정책과 국가권력체계 또는 사회적인 제도에 도전하여 여성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보다는 보다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하는 주류를 의미하는데, 남성문화에 대치되는 여성의 문화를 창조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여성문학, 또는 여성(생활)을 중심으로 다시 구성하는 역사 등의 저술활동을 통하여 가시화되고 있다.

Ⅲ. 가사노동에 대한 페미니즘의 입장

“가사노동”이라는 주제는 페미니즘이나 여성학의 초기부터 관심을 두어 온 문제영역인데, 이 때 가사노동은 보편적으로 가족의 부양에 필요한 무보수노동으로 이해된다(Beer, 1987 : 213). 종합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페미니즘의 출발점은, 가사노동이 여성의 생활조건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조건에서 여성이 가사노동을 수행하게 되었는가를 질문한다. 페미니즘의 활동과 이론들을 고찰해 보면, 가사노동에 대한 입장을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¹⁾에서 가사노동이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지워지는 현상이 착취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가사노동을 이유로 여성은 그들의 취업노동을 포기

하거나 불충분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은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의 근본 요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가사노동은 소멸되어야 할, 여성해방의 방해물로 여겨진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새로 발견하고 재인식하며, 그 평가를 높이려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은 가사노동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의 생활문화 및 그 조건을 분석하거나 개선시킬 수 없음을 인식하고, 가사노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의미와 사회적 중요성, 또 생산성을 다시 이해하고 높이 평가하려는 데 집중한다.

이 입장의 전제는, 가사노동이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노동이라는 것이며, 가사노동 그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다는 것 또 그것이 여성에게만 책임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제적으로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이론가와 활동가들은, 임금노동에의 참여를 통해서만 여성의 해방이 실현될 수 있다는 마르크스주의의 원리를 신봉하면서, 초기에 가사노동의 폐지와 축소를 주장하였으나, 다른 조건들이 변화하지 않는 한 취업이 여성을 해방시킬 수 없음을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최근에 들어서는 가사노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의 관계, 그리고 여성의 삶에 대한 가사노동의 영향 등을 중심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Hagemann-White, 1988 : 9, 19).

종합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페미니즘의 관심은 다음의 두가지 뿌리에서 출발하는 것 같다. 첫째,

1) 오늘날에는 유럽의 고대나 중세시기의 가부장, 즉 가족원의 신체적, 정신적 복지를 책임지면서, 가족과 가족원에 대한 제반권리를 갖고, 가정을 사회적으로 대표하는 의미의 (남성)가부장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보나, 현대 가정과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인식은 아직 존재하며, 사회구조가 남성중심의 원리를 통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M. Mies는 현대 사회를 신가부장적 사회라고 지칭한다(Mies, 1985 : 115 이하).

가사노동이 과연 어떤 것이냐에 대한 호기심, 둘째, 사회에 있어서 가사노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면서도 계속 경멸당하고 그 평가가 낮았다는 데에 대한 도전이다(Ketschau, 1985 : 51).

IV.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한 페미니즘의 영향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한 페미니즘의 입장을 고려할 때, 페미니즘이 가사노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가는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된다.

먼저, 부정적인 영향을 들 수 있는데, 사적인 가정과 가족의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가사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부정적인 입장에서 파악, 가사노동의 축소 내지 소멸로 결론지어지는 측면이다.

이 입장을 파악하려면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기본원리가 되는 마르크스이론을 이해하여야 한다. Marx와 Engels는 사회가 발전되어 가면 사적인 가정형태가 결국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예측하면서, 가정의 의무에서 벗어나 남녀 모두 평등하게 임금노동 즉, 사회적 생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양성의 평등관계가 실현되리라고 희망하였다. 이 경우 사적인 가사노동의 존재가치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 Marx에 있어서 가사노동은 현대 자본주의 생산양식 외부에 존재하는 전자본주의적 잔존물로 파악되며(비교, 폴 스미스, 1986 : 180/나탈리 스킨로프, 1990 : 174), 따라서 그는 사적인 가사노동은 궁극적으로 소멸되리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은 “가정”의 고유성과, 또한 인간 개개인이 가정을 통하여 또 가정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독특한 질적 측면의 부양관계를 중시하는 가정학 내지 가정관리학의 입장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사실 가정을 인간생활의 가장 고유하며 독특한 영역으로 규정, 가사노동을 포함한 가정의 다양한 부양활동을 화폐나 물질로 평가하는 데 한계를 인식하고, 가사노동의 완전한 사회화를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는 가정관리학 있어서 이러한 Marx의 이론은 수용하기 힘든 것이 된다.

Marx와 Engels의 예측과는 달리, 오늘날 거의 모든 사회와 체제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가정의 중요성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오히려 더 강조되기도 하며, 고도로 발전된 분업사회에서 소외된 개개인의 삶의 질은 그 많은 부분이 가정생활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의 소멸이나 사적인 가사노동의 폐지보다는 가정 내에서 남녀 또 가족원 모두의 평등한 역할분담이나 가정의 의무를 동등하게 부담하려는 시도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평등과 억압형태를 해결하는 데에 더욱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페미니즘에 영향받은 많은 활동가와 이론가들이 지금까지 가사노동의 사회적 기능이나 의미를 분석, 인식하기보다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서 가사노동의 폐지를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가사노동에 대한 이 입장의 결론은 사적인 가사노동을 폐지하거나, 혹은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가사노동의 집단화나 사회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나탈리 스킨로프, 1990 : 279). 이것은 가사노동의 작업관계 또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책으로도 이해된다.

중국의 “가사노동혁명”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듯이,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그것이 여성의 해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이 사적이고 가족적이라는 기존의 인식이 허구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클로드 브로이엘, 1985 : 74). 즉, 자녀양육이나 가족원을 위한 조리, 청소, 세탁 그리고 가정관리와 같은 형태의 활동이 사적인 가정 내에서가 아니라 집단활동이나 공동의 협업,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어도 그 가사노동의 가족원을 위한 질적 특성과 속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를 수용할 수 있을 때,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화된 또는 집단화된 가사노동을 통한 부양활동의 질이 과연 가족원의 복지를 최상의 상태로 이끌 수 있느냐 외에도, 그 사회화 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은 과연 자신의 일과 역할에 만족할 수 있는지는 것이다. 소련에서 1900년 대 초의 혁명기에 여성해방을 위한 사회주의 원리에 따라서 “지루하고 하찮은 가사노동으로부터 여성을 해방할 전문종사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는 전문종사자나 기관을 통한 가사노동의 대체, 즉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해당된다. 이 때, “그렇다면 누가 그 전문종사자를 지루하고 하찮은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클로드 브로이엘, 1985 : 62). 이 예에서 제시되듯이, 가사노동으로 인한 제반문제는 단순히 가사노동의 축소나 폐지, 또는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또 그 가치에 대한 평가의 측면에서 우리의 이념과 시각이 변화해야 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느 사회와 문화에서도 가족원 또는 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부양활동으로서의 가사노동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가사노동이 지루하고 하찮은 일로, 또 개인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로 인식되는 한²⁾, 가사노동으로 인한 문제, 특히 여성이 그 주된 담당자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차별과 불이익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편적으로 개별 가정의 구성원은 그 가정에 의해, 그 가정을 통하여 부양받을 때 가장 만족감이 크며, 신체적, 정서적 복지가 크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가사노동의 완벽한 사회화가 과연 가능한가, 또 사회화된 가사노동이 과연 개개인을 최대의, 최적의 복지상태로 이끌 것인가의

2)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과 가사노동의 '평가'는 별개의 것으로 분리되어 개념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부의 가사노동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일로 인식하고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남성들의 경우 그 가사노동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회피하며, 가정 내에서의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담 등을 고려할 때, 또 사회적으로 가사노동은 하등의 화폐적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노동으로 여겨지는 것을 볼 때, 단순히 그 존재에 대한 인정과 또 그 일에 대한 평가는 구별되어 져야 할 것 같다.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이다.

한편,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한 페미니즘의 긍정적 영향은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 요구, “사적인 것은 정치적이다”라는 주장, 관계노동으로서 가사노동을 재인식 한 것, 그리고 재생산 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평가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특히 1960년, 1970년 이후의 국제적인 신여성운동에 있어서 이태리의 여성운동가인 Dalla Costa로부터 시작되는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 요구”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Dalla Costa는 Marx의 이론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주장하며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였다(Schmidt-Waldherr, 1988 : 142-Song, 1992 : 73 재인용). 이 요구는 그 후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응용되고 실제 적용되었으나, 임금이 어디로부터 제공되어야 하는가, 또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마만큼 가사노동 임금이 주어져야 하는가, 임금을 받을 경우 여성(가정주부)의 가정성이 오히려 강화되지 않는가의 의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에 와서는 거의 종식되었다고 본다(Song, 1992 : 74).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사회적 평가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준 데, 또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편(의 임금)에 대한 여성의 의존성이 여성의 억압을 구조화 시키는 한 요인임을 밝혀낸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현대 신여성운동의 방향성을 잘 표현해주는 주장으로 <사적인 것은 정치적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가사노동의 정치화>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가사노동이 더 이상 “낭만적 사랑”의 맥락에서 파악되지 않게 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가사노동은 하나의(정식)노동으로 파악되며, 그 경제적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제공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주장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연결을 필수적으로 인식하며, 그동안 성차별주의로 인해 여성에게만 부가되던 사적 가사노동은 이제 정치적 영역을 통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송혜림, 이기영, 1990 : 22).

세째, 페미니즘에서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관계적 노동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가사노동에 대한 페미니즘의 독특한 이해이다. 관계적 노동은 여성이 가족관계의 성립과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여러 형태의 노동을 의미하며(Kontos/Walser, 1979 : 64), 가사노동에 관한 여성학적 논의에서 출발, 파생되어 다양하게 해석되어 온 개념이다(Kettschau, 1980 : 42). 가사노동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가족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관여하며, 특히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가사노동은 과거의 가시적, 신체적, 물리적 활동의 감소와 동시에 정서적 관계유지를 위한 활동의 증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관계적 노동은 현대의 가사노동을 규정하는 주된 개념이 된다. 가사노동은 다른 대다수의 임금노동과는 달리 그 활동이 "가족"이라는 혈연관계에 기반한 것이며, 구성원 상호 간의 애정, 신뢰감, 부양의 기쁨 등을 포함하는 독특한 성질을 갖고 그 가정 고유의 문화를 표현해 주는 기능을 함께 취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관계적 노동의 특성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어 왔다.

여성운동가들은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를 높이고, 특히 재화와 용역이라는 상품을 생산하여 교환가치를 갖는 일만이 "노동"으로 인식되는 기존의 관념에 대항하기 위하여, 여성의 관계적 노동 즉 가사노동 역시 주부의 애정표현이나 여성의 자연스런 의무가 아닌 하나의 정식 노동임을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경우 사적인 가정 내에서 가족원 간의 관계 유지를 위한 관계적 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은 공적인 영역과는 관계 없는, 따라서 공적인 관심과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으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하기도 하나(v.Schweitzer, 1988 : 137), 이러한 시도를 통하여 기존의 노동개념이 도전받고, 관계적 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재인식하게 된 것은 커다란 공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사노동을 재생산노동으로 보고 그 생산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페미니즘

내에서 아직도 결론 맺지 못한 채 논의되는 내용이다. 이 때 가사노동의 생산성 여부에 대하여 페미니즘 내에서는 크게 두가지 입장이 구분된다. 먼저 가사노동이 비생산적이라는 입장은, 가사노동이 유용하고 필수적이기는 하나 "생산의 조직되는 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적 노동방식에 의해 생산되지 않는 노동이며³⁾, 가사노동 담당자가 시장이나 임금체제와 직접 관계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남편에 의해 자본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잉여가치를 갖지 않는 비생산적 노동이라는 것이다(김혜경, 1985 : 56). 반면에 가사노동이 생산적이라는 입장은, 노동력 상품의 가치와 관련하여, 가사노동을 통해 자본에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노동력이 제공되며 이 노동력은 잉여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김정선, 1992 : 16). 유형의 생산결과로 나타나는 상품은 "생산"된다고 표현하며, 인간이 잠재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인 노동력은 "재생산"된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경우는 생산이면서 동시에 결과적으로 보면 재생산이다(김정선, 1992 : 16).

여성학의 재생산이론은 여성들의 가정내 활동의 많은 부분, 즉 임신이나 출산과 같은 인간을 산출해 내는 활동과 그 인간을 부양하는 가사노동을 생산노동 내지 재생산노동으로 파악하면서(비교, 김정선, 1992 : 17), 가사노동에 대한 기존의 개념 즉 주로 남성에 의해 수행되는 취업노동(임금노동)만을 생산노동이라고 인정하는 사회구조의 지나친 치우침을 비판하여 왔다. 재생산노동으로서의 가사노동에 대한 이러한 인정과 그 가치평가에 대한 새로운 시도는 생산영역과 비생산 영역으로 구분되는 남성영역과 여성영역에 대한 새로운 이

3) 마르크스의 가치론에 보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생산적 노동은 사회적 조정을 통한 교환에 의해서 이뤄지는 노동인데, 가사노동의 생산물인 노동력 가격의 변동이 가사노동 수행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점(노동력이 전혀 안 팔려도 가사노동은 수행됨)과 가사노동의 수행이 사회적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가사노동이 그 산물 즉 노동력을 과잉생산해도 그 수행을 그치지 않음)을 이유로 가사노동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교환과정의 외부에 위치한 비생산적 노동으로 인식된다(폴 스미스, 1986 : 185-191)

해를 가능케 했으며, 나아가서 어떠한 맥락과 배경 하에서 지금까지 가사노동이 여성에게만 전적으로 부가되어 왔는지를 설명하여, 가사노동과 여성의 생활조건과의 관계를 가시화하기도 하였다.

V. 가사노동에 관한 가정관리학의 연구방향

와 같은 가사노동에 대한 페미니즘의 시각과 활동을 통하여 가정관리학에서 얻는 시사점을 무엇인가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가사노동에 대한 가정관리학에서의 시각 및 연구방향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학의 출발은 여성의 억압이나 해방의 측면에서 가사노동이 여성의 삶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분석하며, 가사노동의 역사적 변동과정이나 임금노동과의 연관성 등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는 반면, 가정관리학에서 가사노동은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한 부양활동으로 파악되면서 가사노동 그 자체의 특성에 대한 연구나 영역별 분석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다.

자주 가정관리학은 여성의 가정성을 강화시키고 기존의 성별 노동분담을 고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학분영역으로 비판받고 있기도 한데, 차후로 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제까지 남녀 중고등학교에서의 교과목 분리, 즉 여학생에게는 가정과 가사를, 남학생에게는 기술과 공업, 농업, 상업, 수산업 등의 실업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게 했던 이분법적 제도의 존속은 사실 가정학이나 가정관리학에 대한 위와 같은 비판의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기존의 사회과학들은 가사노동이 여성의 삶의 기회를 제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며, 여성이 왜 가사노동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거의 제시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 속에는(김혜경, 1985 : 1~3), 그동안 가정관리학에서 가사노동이 여성의 일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은 채로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지 못하고 가사노동의 특성에 집중한 연구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비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가정관리학의 기본적 입장은 가정이 여성의 영역이고 사회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이분법적 구조 내시 역할분담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기 보다는, 더구나 그러한 역할규범을 당연하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또 고정화 된 것으로 여긴다기 보다는, 가족원 모두가 평등하게 독립된 인격으로서 가정을 이뤄나가며 가정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이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이러한 평등관계를 통해 바람직한 가정생활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다(비교, 김외숙, 이기영, 최은숙, 1991 : 341).

여성의 생활조건이라는 면을 고려할 때도, 가정관리학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가사노동 분담이나 가족원의 가사노동 시간 등을 파악함으로써, 기존의 불평등한 역할관계, 취업주부의 이중부담등의 실제현상을 밝히며, 그것이 평등한 관계로 되기 위한 그리고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예-구혜령,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 대처 전략, 199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 또한 실제적으로 가사노동의 화폐적 평가를 통해 주부 상해시 보험문제와 보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과 제시(예-문숙재, 정영금, 주부의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4, 1991년) 등 여성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직접적이고도 실천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2) 가정관리학에서 가사노동연구를 위한 과제

가사노동에 대한 페미니즘이나 여성학의 연구와 활동들을 통하여 가사노동의 사적 변천과정이나 전체 사회구조 내에서 가사노동의 위치, 또한 여성의 생활조건과 가사노동간의 관계를 재인식하게 된 이 때, 가정관리학은 이제 미래의 평등한 가정생활, 평등한 양성 간의 역할공유라는 것에 주목하여 다양한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그것은 첫째, 가사노동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더욱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분석, 논증하는 것이다. 가사노동의 임금요구의 예에서 경험했듯이, 가사노동의 의미, 사회적 중요성 그리고 우리 삶에서 기본적이고도 직접적인 부양활

동으로서의 가사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채 가사노동의 화폐적 평가나 임금 등이 요구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그것이 여성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에도 제한이 따르게 된다. 사람들은 왜 가사노동이 평가받아야 하는지, 이제까지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무보수 활동으로 규정되어 수행되어 온 가사노동에 대하여 왜 임금이 지불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하여 그것을 비인간적인 시도라고 생각하며, 충분히 가사노동을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는데 무엇보다에 구체적인 가치평가의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고 그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하는가에 의문을 제시하는 오늘날의 현상을 고려할 때,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우선적이고도 기본적인 작업은 가사노동의 과제이자 목표인 생활유지, 인격의 형성 및 발달, 공동문화의 창조(v.Schweitzer, 1991 : 26,331)라는 개인적, 사회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논증하여 개개인과 사회 전체에 나타내 보이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통하여 가사노동의 가치를 다른 노동처럼 평가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나타내고 사회를 설득하는 작업일 것이다.

둘째, 가사노동과 그것을 담당해 온 여성들의 생활조건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가사노동이 여성의 삶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가를 파악, 그 해결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사노동이 억압과 착취의 요인이라는 이유로 가사노동 담당자들이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려 하지 않을 때, 또한 지루하고 하찮은 가사노동을 누구도 담당하려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야기되는 불행한 현상들을 우리가 예상하여 본다면, 가사 노동의 사회화도, 또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이나 임금도 현재 가사노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주된 담당자인 여성의 생활조건을 개선할 수 없다. 가사노동이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에는 모두 공감하면서, 많은 남성들이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회피하며 주부에게만 부가시키는 현상이나, 또 가사노동 만으로는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자아실현이 어렵다고 여기면서 사회활동을 추구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는 현상, 더불어 여성들의 취업이나 사회활동이 지속적으로 가정과 가사노동으로 인하여 제약되는 현상 등, 반복적인 악순환을 우리가 고려할 때, 가사노동도 또 임금노동도 그것이 인간의 복지에 기여하는 일이라면 동등하게 인정, 평가해 주는 것을 통하여 가사노동과 임금노동 모두 자발적인 선택이 되어질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셋째, 지금까지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 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그 잘못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전업주부라는 위치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전근대적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지기는 현상, 또한 가사노동이 생산적인 일로 인정,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가정관리학의 가사노동연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명확해 졌다고 할 수 있겠다. 가사노동의 가치평가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가사노동을 지루하고 하찮은 일로 여기는 사회적, 개인적 편견, 그리고 가사노동을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평등한 가사분담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중구조를 변화시키고, 또한 교환가치를 갖는 노동만이 생산노동으로 파악되는 경제의 치우침 등이 먼저 제거되고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개인과 사회가 공감하는 일이다.

여성의 생활에 또 그 생활조건의 개선에 집중하여 가사노동의 소멸 또는 가사노동의 생산성 인정 및 그에 대한 임금요구로 대표되는 여성학이나 페미니즘의 입장과, 가사노동에 대한 영역별 연구를 통하여 가사노동과 관련된 현상을 분석해 온 가정관리학은 따라서 그 출발부터가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하여 공동의 연구와 활동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정관리학의 가사노동연구는 위에 제기된 방향성을 토대로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개인적, 사회적 의미의 인정 그리고 하나의 노동 형태로서 평가의 필요성 등에 관한 사회와 정책의 공감을 얻기까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생산”이나 “가치있는 일”에 대한 기존

의 개념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는데, 시장에서 화폐와 교환되는 상품을 창출하는 일만이 생산적 노동으로 평가받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복지에 기여한 모든 활동들이 평등하게 평가받아야 함을 인식하자는 것이다.

VI.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한 페미니즘의 입장을 분석함으로써 가정관리학에서 지향해야 할 가사노동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페미니즘의 개념을 고찰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페미니즘의 상반된 시각 그리고 가사노동의 가치평가에 대한 페미니즘의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가정관리학의 가사노동 연구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제시하여 보았다.

첫째, 사회주의 이론이나 일부 여성학적 논의와는 달리, 가정관리학의 경우 개별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부양, 양육, 교육활동으로서의 가사노동은 그 대체나 축소에 한계가 있으며, 완전한 사회화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페미니즘적 논의에서 제시하는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 가사노동의 사회화 등이 현재 가사노동으로 인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에 주목하여, 가사노동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유지되면서도 그것이 여성(주부)의 삶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상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한편으로는, 가정을 통해 부양받을 때 갖게 되는 만족감, 가족원의 질적 자질 및 관계의 향상,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가족원의 복지등이 유지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처럼 가사노동이 전적으로 주부에게만 부가되는 일방적 역할분담이 해결되어야 하는 두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가정관리학에서는 생활유지, 인격의 형성 및 발달, 공동문화의 창조라는 가사노동의 개인적,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고찰, 분석, 논증하며, 사회의 유용하고도 필수적인 노동으로

서 가사노동도 여타의 노동처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여, 전체 사회가 그것에 공감하게 되는 데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음이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제시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사노동 연구의 과제는 가사노동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여성의 불이익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1) 구혜령(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
- 2) 김외숙·이기영·최은숙(1991). 가정관리학,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3) 김정선(1991). 여성학에서의 재생산논의에 관한 비판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16.
- 4) 김혜경(1985). 가사노동이론에 관한 연구-여성해방론에서의 접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56.
- 5) 나탈리 스펀로프(1990). 여성노동시장이론, 이효재 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6) 문숙재·정영금(1991). 주부의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4).
- 7) 송혜림·이기영(1990).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본 가사노동의 가치와 그 평가, *생활과학 연구* 15,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생활과학연구소.
- 8) 클로디 브로이엘(1985). 하늘의 절반-중국의 혁명과 여성해방-, 김주영 역, 서울 : 동녘출판사.
- 9) 폴 스미스(1986). 가사노동과 마르크스의 가치론, 여성과 생산양식, 울프와 쿤 외 지음, 강선미 역, 서울 : 한겨레, 119-200.
- 10) Brockhaus 대백과사전(1988). 7. Bd., Mannheim, 188p, 608p.
- 11) Meyers 대백과사전(1973). 9. Bd., Mannheim, 366p.
- 12) Beer, U.(1987). Zur Doppeldeutigkeit der Rede vom Wert der Hausarbeit, in : *Hauswirtschaft und Wissenschaft* 35(4), 213-222p.

- 13) Hagemann-White, C.(1988). Zur Geschichte zum Selbstverständnis von Frauenforschung, in : Rapin, H.(Ed.), Frauenforschung und Hausarbeit, Frankfurt/Main, 9-24p.
- 14) Ketschau, I.(1980). Wieviele Arbeit macht ein Haushalt? -zur Analyse von Inhalt, Umfang und Verteilung der Hausarbeit heute, Dissertation, Dortmund.
- 15) _____(1985). Emotionalität und Gestaltungsfähigkeit als qualitative Dimension der Hausarbeit, in : DGH(Ed.), Wirtschaftliche und gesellschaftliche Aspekte für Arbeit im Haushalt, Bad Godesburg, 51-60p.
- 16) Kontos, S., Walser, K.(1979). Weil nur zählt, was Geld einbringt-Probleme der Hausfrauenarbeit, Berlin/Stein/Mfr.
- 17) List, E.(1989). Denkverhältnisse Feminismus und Kritik, in : List, E., Studer, H.(Ed.), Denkverhältnisse Feminismus und Kritik, Frankfurt/Main, 10 p.
- 18) Mies, M.(1985). Subsistenzproduktion, Hausfrauisierung, Kolonisierung, in : Beiträge zur feministischen Theorie und Praxis, 115-124p.
- 19) Schmidt-Waldherr, H.(1988). Hausarbeit-Leistung-Lohn : zum Widerspruch von Erkenntnissen und Interessendurchsetzung, in : Hauswirtschaft und Wissenschaft, 36-3, 139-144p.
- 20) Song, Hye-Rim(1992). Bewertung der Hausarbeit-gesellschaftspolitische Perspektiven in westlichen Industrieländern und Korea, Dissertation von Justus-Liebig-Universität Gießen.
- 21) v. Schweitzer, R.(1988). Hausarbeit-eine private oder öffentliche Angelegenheit?, in : Rapin, H. (Ed.), Frauenforschung und Hausarbeit, Frankfurt/Main, 137-144p.
- 22) _____(1991). Einführung in die Wirtschaftslehre des privaten Haushalts, Stuttgart : Ulmer
- 23) Wisniewski, R., Kunst, H.(Ed.)(1988). Handbuch für Frauenforschung, Stuttgart/Bonn, 168p.